

여수국가산단 등 지역 제조업체 4분기 경기 전망 ‘부정적’

여수상공회의소, 186개社 대상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70.7’ 中·중동발 공급 과잉 등 영향



중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멋진 야경. /여수시청

석유화학 산업이 주축인 여수국가산단 등 여수 지역 제조업체의 4분기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는 지역 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BSI) 결과 ‘70.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률 40.3%)

경기 체감지수 기준값인 100보다 낮은 ‘70.7’로 조사된 것은 기업들이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여수산단의 주력인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발 공급 과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발 글로벌 공급량 확대도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 국내 기업의 범용 제품군의 가격 경쟁력(경쟁국 대비 높은 원가구조) 약세와 낮은 제품 스프레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 분기와 같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판단됐다.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대규모 물량 유입,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 기대 이하의 중국 수요 회복력으로 공급은 넘치지만, 석유화학제품을 수용할 수요시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 때문에 기업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상의는 지난 7월 이후부터 유가는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배럴당 80달러 급락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수요시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품 스프레드 상의 BEP(손익분기점)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인 t당 300달러 수준 아래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는데, 이는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말로 이어지는 4분기도 석유화학산업의 업황은 중국 경쟁사 대비 높은 원가구조로 여전히 ‘부정적’ 관측이 나오면서 석화 기초·

범용 제품 중심의 업황 부진이 고착화될 전망이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현금 창출력 감소에 따른 투자 여력 감소, 자산매각 검토, 생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범용 제품군의 비중을 낮추는 등 지구책 마련에 나서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부진, 공급과잉 현상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이 지속되며 체감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 부진 지속에 일반제조 업종 경우도 기업 투자 심리 위축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민간 소비 약화, 관광 수요 약화, 계절적 성수기 종료 등의 영향으로 역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수 소비 위축(33.0%), 원자재가·유가·환율 불안정(31.3%), 대외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둔화(18.8%) 순으로 꼽았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하동군 농번기 맞아 일손돕기 본격화

하동군이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손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동군은 국가 기반이 되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영농 인력 절감을 위해 농업의 기계화, 병해충 방제 농약 공동 살포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상으로 직접 영농이 어려운 농가, 장애 농가, 수작업이 많은 영세 농가 등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농가가 많아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인력 수요가 많고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군부대, 민간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을 배치 및 지원할 예정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역사·문화 담은 디자인 찾는다

경주시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담은 경주만의 디자인을 찾는다.

시는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2024 경주시 경주다움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주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공간 디자인이다.

접수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광주시 ‘우리최광 김치파티’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광주김치축제를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시청 광장에서 연다.

‘우리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한 광주김치축제는 ▲천인의 밥상 ▲광주김치 스태프 푸드쇼 ▲우주최광(光) 김치체험 ▲김장 오락실 ▲글로벌 김치라운지 ▲광주김치 팝업스토어 ▲김치판매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진도군 18일부터 3일간 ‘명량대첩축제’

2024 명량대첩축제가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3일간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진도 녹진무대를 주무대로 하여, 명량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축제는 첫날, 약무호남제례를 시작으로 해남과 진도 주민들이 깃발을 들고 진도대교를 건너 출정식에 참여하는 출정 퍼레이드에 이은 개막식과 해상전투 재현이 이어진다.

/진도(전남)=양수영 기자

경남도,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0곳’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영호남 ‘한뿔’

전국 36곳 중 경남엔 한 곳도 없어 올해 예산 40% ↓... 내년도 같아

전국 36곳에 운영 중인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가 경남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회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사진)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버스·열차 예매, 병원 예약,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가 전국 36곳에서 운영중으로 경남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는 서울 4곳, 경기 6곳, 경북·전남 3곳,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충북·전북·제주는 각 2곳, 울산·세종·강원·충남은 각 1곳이 조성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며, 2023년 배움터를 이용한 교육생은 99만 6439명으로 약 10만명에 달하는 등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상설교육시설로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22년 682억원, 2023년 698억원에서 2024년 279억원으로 40% 급감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올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디지털 교육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노년층의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거점센터는 경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 노년층이 디지털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6개 광역자치단체 공동성명서

전북 남원시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았다.

시에 따르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영호남 광역자치단체 공동성명서에 전남 홍준표 대구시장 서명하면서 6개 광역자치단체 공동성명서가 완성됐다.

이로써 전북과 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대구까지 1차 후보지 중 영호남 지역 유일의 후보지인 남원시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동의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탤다.

홍준표 시장을 만난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지가 100% 유휴 국유지로 예산 절감이 가능해 정부 긴급재정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달빛철도에 이어 영호남 상생발전의 기폭제로 동서



10일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한 최경식 남원시장(왼쪽)이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 부지선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남원시는 경찰 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한 자연환경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달빛철도 경유지 중심 지역”이라며 동의했다.

/남원(전북)=양수영 기자

신안군, 新양식장으로 김 수급 안정화 도모

전남 1655ha 중 380ha 확보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선제적으로 신규양식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남 1655ha 중 380ha를 확보했다.

이번 신규 개발된 김양식 면허는 11월 중 면허 예정으로 올해 10월~11월에 생산되는 잇바디돌김의 생산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하는 시기를 고려하면 김 수급 안정화에도

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양식업권의 대부분은 어촌계 중심으로 개발·운영되고 있어 신규 어업자(귀어·청년 등)에 대해서 양식업 참여 기회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신안군수협)과 협의하여 지역별로 새로 유입된 어업인 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광주·전남도에 장기 방치 주유소 늘어

산업부가 대책 없이 방치 ‘지적’

주변 토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홍물 휴·폐업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도 최근 5년간 휴·폐업이 반복되면서 장기 방치 주유소에 대한 철거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제공한 산업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

르면 장기간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는 전국 약 700여곳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의실이 파악한 전국에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 증가세는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종민 의원은 “2014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나 산업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까지도 공제조합 설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전남=양수영 기자